

NO ZONE

당신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LOWE'S

안심하고 편안히 시공하세요.



← CLOSE

- 교육
- 초중고
- 본기사에 대한 댓글
- 0 개 -

### [인터뷰] 조엘 클라인 뉴욕시 교육감, '한인들 교육열 높지만 행사참여 저조' [뉴욕 중앙일보]

한-영 이중언어 학습 확대, 글로벌 시대 교육환경 조성

기사일력: 08.18.08 20:36



"한인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상위권 학교에 많이 진학하고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뉴욕시 교육을 총책임지고 있는 조엘 클라인(사진) 뉴욕시 교육감은 한인 학부모의 교육열을 극찬했다.

지난 16일 맨해튼 센트럴파크 '뉴욕시 백투스쿨 킥오프' 행사장에서 만난 클라인 교육감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교육 행사 참여는 부족한 편"이라며 "이러한 자녀사랑을 집안에서만 하지 말고 학교 행사나 교육국 행사에서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인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어 정규교육 채택'에 대해서는 직답을 회피했다. 다만 "이원언어(Dual Language)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수업을 하는 한국어 이원언어 학교는 플러싱의 PS32 뿐이다.

클라인 교육감은 "뉴욕은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공간"이라며 "뉴욕에서

공무하는 학생들은 이런 교육 환경으로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인 교육감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168개.

6년째 뉴욕시 공립교육 수장을 맡고 있는 클라인 교육감은 컬럼비아대학교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뒤 연방법무부 반독점국장(차관보급) 시절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여 승소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강이중행 기자

- ▶ '9월말 끝난다' 전도사 반주자 종교이민 비상
  - ▶ 교회 다니는 학생이 성적도 높다?
  - ▶ [Blog] 미국 법과대학원(로스쿨) 들어가기
- ▶ 교회에서 반바지에 슬리퍼는 불경한 복장?
  - ▶ '미입국자 어떻게 탄속합까요?'
  - ▶ [Blog] 휴대폰으로 찍은 명작 사진

뉴스홈으로 주면위로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내블로그에 담기

### Interview with Joel Klein, NYCDOE Chancellor

**Korean parents show high enthusiasm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but little participation during school events**

Joel I. Klein, Chancellor of New York City’s Department of Education, strongly praised Korean parents’ interest in their child’s education. “Korean parents show great interes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there are so many Korean students at high ranking schools, and the reason why they obtain high grades.”

When I interviewed Mr. Klein at the “NYC Back to School Kick-off” event, he said, “Including Korean parents, Asian parents have low participation rate at educational events, regardless of their children’s high performance. I wish that parents would express their concerns not just at home, but also at school or at DOE events as well.”

He eluded giv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regarding the adaptation of Korean language classes. Instead he said, “Adding more schools with Dual language programs would be a good alternative.” PS 32 in Flushing is the only school that is currently offering a Korean and English Dual language program.

Mr. Klein said “New York City is the place where all different ethnic groups live together. This multicultural environment benefits students by developing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Mr. Klein, there are 168 different languages spoken in NYC.

Mr. Klein received his BA from Columbia University and earned his J.D. from Harvard Law School. He has also worked as Assistant Attorney General in charge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s antitrust division, and led landmark cases against Microsoft.